

남·여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The Relations Between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박성연(Sung Yun Park)¹⁾

강지훈(Ji Heun Kang)²⁾

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emotion regulation,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of boys and girls. A total of 321 5th-6th grades students were selected for the study. The data was collected via questionnaires. As results, there were som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boys and girls in overt aggression and peer adjustment. It was also found that emotion regulation,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And school adjustment was influenced by emotion regulation as well as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s. Finally, only for boys, the relations between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nd school adjustment were mediated by their aggression.

Key Words : 정서조절(emotion regulation), 공격성(aggression), 학교생활 적응(school adjustment).

I. 서 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의 저 연령화, 과격화는 아동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부적응의 단면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동들이 또래에게 수용되지 못하면서 비행, 범죄, 자살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부적응을 경험한다는 보고(Parker & Asher,

1987)와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아동의 부적응은 전생애적 발달 관점에서 볼 때 아동의 대인관계에 대한 내적작업 모형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성인기의 사회적 부적응을 유의미하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아동의 사회적 부적응에 대한 관심과 이것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함의를 갖는 연구는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과 적응을 돕는

¹⁾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수

²⁾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석사과정

Corresponding Author : Sung Yun Park, Department of Consumer Science &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20-750, Korea E-mail : psy@ewha.ac.kr

효과적인 중재방안이 될 수 있다.

적응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인으로 주목 받는 정서조절(emotion regulation)은 어떤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정서적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수정하는데 관계되는 내적, 외적 과정으로 정의되며(Thompson, 1994), 최근에는 정서조절이 환경과의 교류적(transactional)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즉, 정서는 개인이 경험하는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정서적 반응에 의해 조절되고, 이러한 정서조절 과정은 정서표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Thompson, 1990). 결국, 정서조절은 환경에 적응적으로 수정, 변화될 수 있으며 정서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사회적 관계가 영향을 받고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정서조절 능력이 부족하면 부모, 또래 등 자신이 처한 주변 환경과의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런 부적응의 경험은 다시 정서조절 능력에 역동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사실상 정서조절 능력은 남아가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더 많이 나타낸다는 타고난 차이(Weinberg, Tronick, Cohn, & Olson, 1999) 외에도 문화 또는 사회화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에 따라 정서조절 능력의 차이를 보인다(Kochanska & Coy, 2002). 즉, 부모-아기 간의 상호작용에서 아기의 성은 중요한 변인이며(Bornstein, 2002), 부모는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른 양육신념이나 기대를 갖고 아동의 정서적 행동에 대한 반응이 달라진다(Calkins, 1994). 따라서 양육행동 등 사회화의 영향으로 남아는 여아보다 회피전략을 많이 쓰는 등 정서표현방식이나 정서조절 전략에서 남아와 여아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Eisenberg, Fabes, Bernzweig, Karbn, Poulin, & Harnish, 1993; Gottman & Katz, 1989;

양연숙 · 조복희, 2001; 임희수 · 박성연, 2002).

예측할 수 있듯이 정서조절 능력은 또래관계의 유능성이나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아동은 또래간의 인기도가 낮은 한편(Eisenberg & Fabes, 1992), 정서조절 점수와 또래 유능성 점수간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보고되고 있다(임연진, 2002). 이외에도 정서조절 능력이 낮은 아동은 내재화된 행동문제와 외현화된 행동문제를 함께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어(Eisenberg 등, 1993), 정서조절 능력의 부족은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과 동시에 외현화된 행동문제를 보임으로써 공격성 같은 문제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또래 괴롭힘과 정서조절 능력, 공격성간의 관계를 본 선행연구에서도(Schwartz, Dodge, Coie, Hubbard, Cillessen, Kemerise, & Bateman, 1998; Schwartz & Proctor, 2000; Shields Cicchetti, 1998)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이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회적인 부적응에 있어 정서조절 능력의 부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공격성을 나타냄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변인임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적절한 정서조절 전략이 사회적 관계 내에서의 유능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적인 적응을 도와주는 직, 간접적인 역할과 함께 공격적 행동의 발달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생애 초기에 형성된 공격성은 성인기까지 지속되고 강화되는 경향이 있어(Olweus, 1979; Tremblay, 2000) 과격하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부적응을 낳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 부적응을 예측하는 중요변인으로 정서조절 능력과 더불어 공격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

다. 공격성은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의도적 행동으로 정의되기 때문에(Coie & Dodge, 1998; Trembly, 2000), 공격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신체적으로 남에게 해를 주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들에 초점을 맞추어 대체로 남아들이 연구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Crick과 Grotpeter(1995)는 여아가 주로 나타내는 공격성의 형태로 또래간의 우정관계를 조정함으로써 타인에게 해를 주고자 하는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을 제안하였다. 또한 Dodge 등은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도구로서의 주도적 공격성과 위험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적대적으로 해석하여 나타나는 일종의 방어적인 반응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였다(Crick & Dodge, 1996; Dodge, Lochman, Harnish, Bates, & Pettit, 1997; Schwartz 등, 1998; Smithmyer, Hubbard, & Simons, 2000). 이러한 공격성 유형에 대한 여러가지 관점들은 공격성에 대한 연구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또래 괴롭힘 현상이나 사회부적응 문제 등을 연구하는데 있어 다양한 연구의 틀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공격성과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공격성의 유형에 따른 사회적, 심리적 문제를 연구할 때 주로 위축, 불안, 우울 등의 한정된 심리적 측면만을 다루거나, 또래 괴롭힘이나 비행 등 극단적인 행동양상을 다룸으로써 실제 또래관계나 학교생활에서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적응 양상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연구들은 여러 가지 공격성 유형에 따라 아동의 심리적, 또는 행동적 적응의 문제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반응적 공격성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시 상대방의 단서를 왜곡시키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적대적 귀인 성향과 관련이 높기 때문에(Crick Werner, 1998)

주로 또래 거부와 또래에 의한 괴롭힘, 사회적 위축, 불안 등 관계적이고 내면화된 적응 문제를 많이 보인다(Dodge at al., 1997). 반면, 주도적 공격성을 나타내는 아동은 외현화된 행동문제를 많이 나타냄으로써(Crick & Dodge, 1996; Dodge at al., 1997; Schwartz at al., 1998) 다른 양상의 부적응을 보인다. 이러한 부적응 문제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 남아의 경우는 외현적인 공격성을 나타낼수록 또래관계에서 지각된 인기도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여아는 관계적인 공격성을 나타낼수록 인기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Rose, Lockerd, & Swenson, 2001).

또한 공격성에서의 성 차나 아동이 표현하는 공격성 유형은 정서조절 능력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정서조절능력이 또래 괴롭힘 등 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Schwartz 등, 1998; Schwartz & Proctor, 2000; Shields & Cicchetti, 1998), 공격적인 행동은 일부 정서조절 능력이 부족한데 기인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리고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도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를 보여, 남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 능력은 주도적 공격성 및 관계적 공격성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고(박혜경·박성연, 2002), 여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 능력은 반응적 공격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서지영, 2003).

종합해보면, 정서조절능력이나 공격적 행동에서 남녀 아동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조절능력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드물 뿐 아니라, 성에 따라 정서조절과 공격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어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더욱이 학교나 또래관계가 학령기 아동이 많은 시간 동안 상호 작용하는 주된 집단임을 고려할 때

(Boivin & Vitaro, 1995; Dodge & Coie, 1987)

학교나 친구관계에서의 적응문제와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 간의 관계와 성차를 살펴보는 것은 아동발달에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근거해볼 때 정서조절 능력이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선행변인이 될 것이며, 아동이 나타내는 공격성의 유형에 따라 적응상의 문제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아동은 정서적으로 격해 질 때 주로 공격적 행동을 보이고, 이로 인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아, 정서조절 능력과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이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관계 지향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을 포함시키고, 남아와 여아 각각을 대상으로 정서조절 능력, 공격성 정도 및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공격성 유형, 학교생활 적응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학교생활 적응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아동의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5>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공격성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6> 아동의 공격성은 정서조절 능력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에 위치하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314명(남아 : 160명, 여아 : 154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아동의 평균 연령은 11.6세, 어머니는 40.4세이었으며,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약 273만원으로 어머니들은 가정의 경제수준을 대부분(52%) 중류로 지각하고 있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척도, 공격성 척도, 그리고 학교생활 적응 척도로 구성된다. 정서조절 능력 척도는 어머니가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공격성 척도와 학교생활 적응 척도는 아동 자신이 직접 평정하였다.

1) 정서조절 능력 척도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척도는 Shields와 Cicchetti(1997)가 개발한 교사 및 부모용 Emotion Regulation Checklist(ERC)의 척도 24개 문항을 박혜경, 박성연(2002)이 번안한 것을 요인분석을 거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1차 요인분석 결과, Shields와 Cicchetti (1997)와 마찬가지로 1요인 정서조절(Emotion Regulation), 2요인 불안정한 정서(Negativity), 3요인 부적절한 정서(Inappropriate Affect)의 세 요인이 추출되었다. 그러나 2요인과 3요인의 Cronbach's α 값 신뢰도가 각각 .55와 .57로 비교적 낮고 요인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 2개 요인으로 지정하여 다시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1요인에는 '어른들이 말을 걸면 미소, 웃음을 짓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자신의 슬프거나 화날 때, 또는 두려울 때 말로 표현한다’ 등의 4 문항이, 2요인에는 ‘쉽게 좌절한다’, ‘다른 아이들이 말을 걸면 화난 목소리로 말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등의 8문항이 포함되었다. 1요인에 포함된 각 문항들은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여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므로(Shields Cicchetti, 1997) 기능적 정서조절(Emotion Regulation)로 명명되었다. 한편, 2 요인에 포함된 문항내용은 분노 상황이나, 공격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기분 변화에 따라 자신의 정서의 강도를 조절하지 못하는 반응행동을 의미하므로(Shields Cicchetti, 1997) 역기능적 정서조절(Negativity/Inappropriate Affect)로 명명되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이들 12개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아주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기능적 정서조절과 역기능적 정서조절 척도 요인의 Cronbach's α 값 신뢰도는 각각 .66과 .68로 나타났다(<표 1>참조).

2) 아동의 공격성 척도

아동의 공격성 척도는 Crick와 Grotpeter(1995)의 공격성 정의와 Schwartz, Chang과 Farver (2000)의 공격성 척도를 토대로 주도적,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유형을 구분하여 개발한 20개 문항의 질문지(박성연, 2002)를 사용하였다. 응답자료에 대한 varimax rotation을 통한 주성분 분석 결과, 기존의 세 개 요인이 확인되어 1요인은 반응적 공격성(8문항), 2요인은 관계적 공격성(6문항), 3요인은 주도적 공격성(6문항)으로 명명되었다.

반응적 공격성 문항은 ‘나를 해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수하고 만다’, 관계적 공격성 문항

<표 1> 각 척도의 요인별 문항 및 신뢰도

척도	문항수	α 값
정서조절 능력		
요인1 기능적인 정서조절	4	.68
요인2 역기능적인 정서조절	8	.66
공격성		
요인1 반응적 공격성	8	.79
요인2 관계적 공격성	6	.77
요인3 주도적 공격성	6	.78
학교생활 적응		
요인1 친구관계	5	.86
요인2 리더쉽	4	.78
요인3 소속감	6	.72

은 ‘다른 아이를 따돌려 그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리고 주도적 공격성 문항은 ‘화가 나면 다른 아이들의 물건을 부수어 버린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각 척도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격성 척도 세 요인의 Cronbach's α 값 신뢰도는 각각 .79, .77, .78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표 1>참조).

3) 학교생활 적응 척도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의 적응을 친구와의 사회심리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선행연구들(김지신, 1996; 노숙영, 1997; 박주희·이은혜, 2001)을 참고로 학교생활 및 또래적응과 관련된 소속감과 리더쉽, 친구 관계에 관한 15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varimax rotation을 통한 주성분 요인분석 결과, 1요인은 친구관계(5문항), 2요인은 리더쉽(4문항), 3요인은 소속감(6문항)으로 명명되었다. 친구관계 요인은 ‘친구와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한다’, 리더쉽 요인은 ‘친구들을 잘 이끌어 나간다’, 소속감

요인은 ‘친구들의 집단에 속해 있다고 느낀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평가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관계나 소속감, 리더쉽 능력이 높아 적응력이 높음을 뜻한다. 학교생활 적응척도의 요인별 Cronbach's α 값 신뢰도는 .72에서 .86 범위로 (<표 1>참조)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3. 자료수집 절차 및 분석

연구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하는 초등학교 2개교, 2개 반의 남녀 학생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한 후 회수하였다. 즉, 대상 아동의 공격성과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을 묻는 아동용 질문지는 교실에서 실시 후 바로 회수하였으며, 배경변인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묻는 어머니용 질문지는 아동이 집으로 가져가 어머니께 완성하도록 부탁한 후 일주일 이내에 회수하였다. 배부된 질문지 총 420부 중 350부가 수거되었으며, 조사자료 중 무응답과 불성실한 응답이 있는 36부를 제외하여 314부의 질문지가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 백분율, 평균, 요인분석, Cronbach's α 계수에 의한 신뢰도를 산출하였고,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 분석, t 검증, 중다회귀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정서조절 능력, 공격성 유형, 학교생활 적응에서의 성차

아동의 성에 따라 정서조절 능력, 공격성 유

<표 2> 아동의 성에 따른 정서조절 능력, 공격성 및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

	남(N=159)		여(N=154)		t
	M	SD	M	SD	
<u>정서조절</u>					
기능적	2.73	.53	2.79	.55	-1.06
역기능적	2.37	.49	2.27	.46	1.03
<u>공격성</u>					
반응적	2.43	.55	2.35	.56	1.29
관계적	1.61	.43	1.59	.44	.46
주도적	1.65	.45	1.41	.39	5.09**
<u>학교생활 적응</u>					
소속감	3.18	.55	3.28	.57	-1.60
리더쉽	2.22	.63	2.40	.68	-2.30*
친구관계	3.36	.51	3.46	.57	-1.78

* $p < .05$ ** $p < .01$

형, 학교생활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t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표 2>에서 보듯이 정서조절 능력에서는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주도적 공격성과 리더쉽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다. 즉,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주도적인 공격성을 보였고($t = 5.09, p < .01$), 여아가 남아보다 다소 높은 리더쉽을 보이는 것으로($t = -2.30, p < .05$) 나타났다.

2.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표 3>참조), 남아의 기능적인 정서조절 능력은 어떠한 공격성 유형과도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은 반면, 역기능적인 정서조절 능력은 반응적, 관계적 및 주도적 공격성 등 모든 공격성 유형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자신의 정서를 기능적으로 잘 조절하지 못하는 남아일수록 반응적, 관계적, 주도적 공격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여아의 경우는 기능적인 정서조절 능력

〈표 3〉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의 상관관계

	공격성		
	반응적	관계적	주도적
남아 (N=157)			
기능적 정서조절	.13	-.14	-.07
역기능적 정서조절	.23**	.22**	.25**
여아 (N=154)			
기능적 정서조절	-.17*	-.07	-.16
역기능적 정서조절	.24**	.08	.11

* $p < .05$ ** $p < .01$

및 역기능적인 정서조절 능력이 반응적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정서를 잘 조절하는 여아일수록 반응적 공격성이 낮은 반면,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여아는 높은 반응적 공격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여아의 관계적 공격성이나 주도적 공격성은 정서조절 능력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정서조절 능력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표 4〉참조), 남아의 기능적인 정서조절 능력은 소속감, 리더쉽 및 친구관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역기능적 정서조절 능력은 위의 모든 학교생활 적응내용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여아의 경우 또한 남아와 마찬가지로 정서조절 능력이 학교생활 적응의 내용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능적 정서조절 능력은 소속감, 리더쉽 및 친구관계와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한편, 역기능적 정서조절 능력은 친구관계를 제외한 학교생활 적응 내용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서 소속감 및 리더쉽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정서조절을 잘 할수록 소속감, 리더쉽과

〈표 4〉 정서조절 능력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상관관계

	소속감	리더쉽	친구관계
	남아(N=157)		
기능적 정서조절	.55***	.68***	.38***
역기능적 정서조절	-.21**	-.19*	-.18*
여아(N=154)			
기능적 정서조절	.56***	.70***	.51***
역기능적 정서조절	-.32***	-.35***	-.15

* $p < .05$ ** $p < .01$ *** $p < .001$

친구관계를 맺는 능력이 좋아서 학교생활 적응을 잘 하고, 역기능적으로 정서조절을 할수록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남아의 경우, 반응적 공격성은 모두 학교생활 적응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관계적 공격성이나 주도적 공격성은 소속감, 리더쉽 및 친구관계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한편, 남아의 경우와 달리, 여아의 반응적 공격성은 소속감이나 리더쉽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학교생활 적응의 내용과 높은 관련을 보였다. 그러나, 여아의 관계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은 남아와 마찬가지로 학교생활 적응과 대체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표 5〉참조).

〈표 5〉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상관관계

	소속감	리더쉽	친구관계
	남아(N=157)		
반응적	-.06	.08	.02
관계적	-.27**	-.20*	-.29***
주도적	-.23**	-.21**	-.18*
여아(N=154)			
반응적	-.21**	-.22**	-.05
관계적	-.21*	-.17*	-.15
주도적	-.29***	-.17*	-.23**

* $p < .05$ ** $p < .01$ *** $p < .001$

5.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의 상대적 영향력

남아 및 여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 간의 상관관계 결과를 근거로 남, 여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생활 적응 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1단계에서 정서조절 능력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공격성을 투입한 결과, <표 6>에서 보듯이 학교생활 적응에는 정서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성과 관계없이 남아와 여아 모두 기능적인 정서조절 능력은 소속감, 리더쉽, 친구관계 등 학교생활 적응 모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아는 특히 리더쉽에 있어 역기능적인 정서조절이 기능적 조절능력보다 상대적으로

<표 6> 남·여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의 위계적 회귀분석

	소속감		리더쉽		친구관계	
	남	여	남	여	남	여
	β	β	β	β	β	β
정서조절						
기능적	.52***	.48***	.14*	.66***	.33***	.53***
역기능적	-.13	-.12	-.52***	-.06	-.12	.05
공격성						
반응적	-.01	.02	.03	-.06	.07	.16
관계적	-.13	-.07	-.12	-.05	-.20*	-.10
주도적	-.11	-.17*	-.06	-.02	-.06	-.16
R ²	.38	.36	.50	.50	.22	.30
F	17.68***	16.47***	28.51***	29.12***	8.18***	12.44***
(df)	(5,145)	(5,146)	(5,145)	(5,146)	(5,145)	(5,146)

*p<.05 ***p<.001

더 크게(각각 β=-.52, p<.001; β=.14, p<.05)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아의 리더쉽은 기능적 정서조절 능력(β=.66, p<.001)만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격성은 정서조절능력에 비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훨씬 적었으며, 그 내용도 아동의 성에 따라 달랐다. 즉, 여아의 경우는 주도적 공격성이 소속감에 부적인 영향(β=-.17, p<.05)을 미쳤으며, 남아의 경우는 관계적 공격성이 친구관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0, p<.05).

6. 정서조절 능력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이론적인 고찰(Eisenberg 등, 1993; Shield & Cicchetti, 1998)과 지금까지의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공격성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가정되었다. 이에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 학교생활 적응의 세 변인 각각의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을 중심으로 Baron과 Kenny (1986)의 모델에 근거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단순회귀 분석을

<표 7>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소속감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단계	예측변인	β
1	역기능적 정서조절	-.21**
2	역기능적 정서조절 관계적 공격성	-.16 -.26**
R ²	.11	
F(df)	8.99***(2, 154)	

p<.01 *p<.001

〈표 8〉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리더쉽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단 계	예 측 변 인	β	예 측 변 인	β
1	역기능적 정서조절	-.19*	역기능적 정서조절	-.19*
2	역기능적 정서조절	-.15	역기능적 정서조절	-.15
	관계적 공격성	-.19*	주도적 공격성	-.16*
R^2	.07		.06	
F(df)	5.68***(2, 154)		4.94**(2, 154)	

* $p<.05$ ** $p<.01$ *** $p<.001$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매개 변인인 공격성의 각 유형에 미치는 정서조절 능력 각 요인들의 영향력과, 매개변인이 통제되었을 때 정서조절 능력 각 하위요인의 설명력이 감소하는지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남아의 경우 학교생활 적응의 모든 측면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남아의 소속감에 미치는 역기능적 정서조절 능력의 영향력은 관계적 공격성을 추가함으로써 유의하지 않게 되어($\beta=-.21, p<.01; \beta=-.16, ns$), 남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은 관계적 공격성을 매개로 소속감에 영향을 주었다(<표 7>참조).

또한 남아의 리더쉽에 미치는 역기능적 정서조절 능력의 영향력(각각 $\beta=-.19, p<.05, \beta=-.19, p<.05$) 역시, 관계적 공격성 및 주도적 공격성을 추가로 투입했을 때 유의하지 않게 되어 공격성이 완전한 매개역할을 하였다(각각 $\beta=-.15, ns, \beta=-.15, ns$)(<표 8>참조).

친구관계의 경우도 공격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나, 친구관계에 미치는 역기능적 정서조절 능력의 영향($\beta=-.18, p<.05$)은 관계적 공격성을 추가했을 때 유의하지 않게 되었다($\beta=-.12, ns$)(<표 9>참조). 즉, 남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 능력은 관계적 공격성을 매개로 친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여아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서조절 능력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공격성

〈표 9〉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친구관계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단계	예 측 변 인	β
1	역기능적 정서조절	-.18*
2	역기능적 정서조절	-.12
	관계적 공격성	-.27**
R^2	.10	
F(df)	8.43***(2, 154)	

* $p<.05$ ** $p<.01$ *** $p<.001$

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여아의 정서조절 능력은 학교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 의

본 연구는 아동의 성별에 따른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의 상대적 영향력이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314명(남 : 160명, 여 : 154명)과 그 어머니로부터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공격성 유형 및 학교생활 적응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남녀의 정서조절 능력은 남녀 간에 유의한 성차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공격성과 적응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 주도적인 공격성은 남아가 다소 높고 리더십은 여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 능력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본 연구 결과는 선생님이나 영아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감정조절이 어렵고(Feldman, Brody & Miller 1980; Weinberg, Tronick, Cohn Olson, 1999), 학령기 남아는 분노나 좌절에 대해 여아보다 더 공격적으로 표현하거나(Eisenberg 등, 1992; 1993) 회피적으로 대처한다는 임희수(2000)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측정도구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위의 선행연구들이 좌절에 대한 표현방식이나 전략을 중심으로 정서조절을 연구한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기능적 또는 역기능적인 정서조절 능력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와 같은 내용을 측정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며, 전반적인 정서조절 능력 정도에서 성차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경험적 연구를 통해 규명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이외에도, 남아가 여아보다 유의하게 높은 주도적 공격성을 나타낸 본 연구결과는 일반적으로 공격성이 여아보다는 남아에게서 많이 나타나며(Maccoby Jacklin, 1980; 이경희, 1998), 남아에게서 주도적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Crick과 Grotper(1995)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남아가 신체적이며, 직접적인 형태의 주도적 공격성을 많이 보인다고 결론지을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남아선호 사상과 가부장적인 제도가 바탕이 되어온 문화권에서는

남녀간의 공격적 표현에 있어 더욱 성 정형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여아가 남아보다 유의하게 높은 리더십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교 5학년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통솔력을 보였던 김지신(1996)의 결과를 지지하는 한편, 유치원 연령의 아동에서는 주도성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던 결과(김정아, 1989; 임진영, 2002)와 비교된다.

둘째, 남, 여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특히 남아의 경우 자신의 정서를 적절한 방식으로 조절하지 못하면 반응적, 관계적, 주도적 공격성이 모두 높게 나타남으로써 역기능적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 간의 밀접한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정서적 강도가 높고 자기조절 능력이 낮은 아동이 공격적인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연구들(Eisenberg Fabes, 1992; Goodman, Brogram, Lynch Fielding, 1993)를 지지한다. 또한 혼란스러울 때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진정시킬 수 있는 아동이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문제행동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결과(Gottman & Katz, 1989)와 맥을 같이한다.

한편, 여아의 경우는 정서조절 능력이 반응적 공격성과만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어 남아와 차이를 보였다. 즉, 정서조절 능력이 유일하게 반응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것은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한 아동이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선행 연구(Dodge, 1987)와 상통하는 것으로 반응적 공격성이 적대적 귀인성향과 자기방어적인 공격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셋째, 정서조절 능력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

계를 살펴본 결과, 남아와 여아 모두 기능적 정서조절 능력 및 역기능적 정서조절 능력이 학교생활 적응의 모든 내용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즉, 기능적 정서조절 능력은 학교생활 적응의 모든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역기능적 정서조절 능력은 학교생활 적응의 모든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들은 정서를 잘 조절하는 아동일수록 또래간의 지위가 높고 사회적 유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Eisenberg & Fabes, 1992; 임연진, 2002)를 지지한다. 즉, 남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은 전반적으로 정서조절 능력이 중요한 변인으로 학교생활에서 또래들과 상호작용 시 분노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는 아동이 원만한 친구관계와 리더십 능력을 발휘하고 또래 집단에 대한 소속감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아동의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남아의 경우 반응적 공격성은 어떠한 적응 관련 변인과의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관계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은 모든 적응관련 변인인 소속감, 리더십 및 친구관계에서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 관계적, 주도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도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적 공격성을 보이는 남아가 사회 심리적 적응에 있어 친구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한 결과(Crick & Grotpeter, 1995)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남아들 사이에서 개인의 감정이나 관계를 손상시키거나 위협함으로써 남에게 해를 주는 간접적인 형태의 관계적 공격성은 직접적인 형태의 주도적 공격성과 마찬가지로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반응적 공격성이 적응과 관련이 없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로써 남아의 경우 반응적 공격성이

지극히 당연한 공격적 유형으로 인식되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아의 경우는 세 가지 유형의 공격성 모두가 주로 소속감이나 리더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공격성이 높을수록 소속감과 리더십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여아의 공격성은 주로 소속감이나 리더십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단순 상관관계에서는 정서조절 능력이나 공격성이 모두 학교생활 적응과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났으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본 결과, 남아와 여아 모두 학교생활 적응은 기능적인 정서조절 능력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공격성 자체보다 정서조절 능력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아의 경우는 특히 주도적 공격성이 소속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주도적인 공격성이 높을 때 소속감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아의 경우는 관계적 공격성이 높을 때 친구관계가 나빴으며, 역기능적 정서조절 역시 중요한 변인으로 리더십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은 그 내용에 따라, 그리고 아동의 성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이에 따른 중재방식도 여러 방향에서 접근하고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섯째, 경로분석결과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및 경로는 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남아의 경우는 정서조절 능력과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역기능적 정서조절 능력을 보이는 남아는 관계적이나 주도적인 공격성을 나타냄으로써 학교생활 적응의 문제를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역기능적인 정서조절은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남아의 경우, 기능적인 정서조절 능력을 길러줌과 동시에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공격성으로 표출하지 않고 바람직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와 지도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아의 경우는 정서조절 능력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이 매개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정서조절 능력의 직접적인 영향만을 시사하였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은 남아와 여아 모두의 학교생활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또한 학교생활 적응에서 정서조절 능력의 영향은 공격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으며 이러한 세 변인들 간의 관계는 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 특히 남아의 경우는 정서조절능력은 공격성을 매개로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성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아동이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은 여러 가지 유형의 공격적 행동을 자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도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나 교사는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를 통해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공격성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중재함으로써 학교생활에 안정적이고 올바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Shields와 Cicchetti(1997)가 개발한 Emotion Regulation Checklist(ERC)를 사용하였으나, 정서조절능력이 사회적 환경이나 문화에 따라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타당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연구에서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변인들을 파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이 공격성의 유형을 단일화해서 연구하거나 아동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하여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 유형,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를 남아, 여아 각각을 대상으로 분석, 연구함으로써 아동지도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참 고 문 헌

- 김지신(1996). 어머니의 전통 근대 가치관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김정아(1989).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세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노숙영(1997). 중학생의 학교적응, 학업성취, 정서 및 문제행동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박성연(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공격성간의 관계 및 세대간 전이. *아동학회지* 23(5), 41-166.
- 박혜경·박성연(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8), 87-98.
- 서지영(2003). 부모의 양육행동 및 여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여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연숙·조복희(2001). 타인 양육 영아의 정서조절: 격리 및 타인 양육특성과 어머니 및 영아특성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3), 67-81.
- 이경희(1998). 관계지향 공격성 및 외현화 공격성과 심리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초등학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연진(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또래 유능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 113-124.
- 임희수·박성연 (2002).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

- 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37-54.
- Baron, R., & Kenny, D.(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s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a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olvin, M., & Vitaro, F.(1995). The impact of peer realtionships on aggression in childhood : Inhibition through coercion or promotion through peer support In J. McCord(Ed.), *Coercion and punishmnet in long-term perspectives*(pp. 183-197).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rnstein, M.(2002). Parenting infants. In M.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pp. 3-44). NJ : LEA.
- Calkins, S. D.(1994). Origins and outcom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In N. Fox(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pp. 53-72). *Monographs of SRCD serial No. 240, vol. 59, Nos, 2-3.*
- Coie, J. D., & Dodge, K. A.(1998).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W. Damon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Vol. 3, pp. 779-862). Toronto : Wiley.
- Crick, N. R., & Dodge, K. A.(1996).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echanism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7, 993-1002.
- Crick, N, R., & Grotepeter, J. K.(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Crick, N. R., & Werner, N. E.(1998). Response decision processes in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9, 1630-1639.
- Dodge, K. A., Lochman, J. E., Harnish, J., Bates, J., & Pettit, G.(1997).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school children and psychiatrically impaired chronically assaultive youth.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37-51.
- Dodge, K., & Coei, J.(1987).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958-966.
- Eisenberg, N., & Fabes, R. A.(1992). Emotion, reg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In M. S. Clark(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Vol. 14). Newbury Park, CA : Sage.
- Eisenberg, N., Fabes, R. A., Bernzweig, J., Karbon, M., Poulin, R., & Hanish, L.(1993). The relations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o preschoolers' social skills and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4, 1418-1438.
- Goodman, S. H., Brogan, D., Lynch, M. E., & Fielding, B.(1993).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in children of depressed others. *Child Development*, 64, 16-531.
- Gottman, J. M., & Katz, L. F.(1989). Effects of marital discord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health.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73-381.
- Hittleman, J. H., & Dicks, R.(1979). Sex differences in neonatal eye contact time. *Merril-Palmer Quarterly*, 25, 171-184.
- Kochanska, G., & Coy, K.(2002). Child emotionality and maternal responsiveness as predictors of reunion behaviors in the strange situation. *Child Development*, 73(1), 228-240.
- Maccoby, E. E., & Jacklin, C. N.(1980). Sex difference in aggression : A rejoinder and reprise. *Child Development*, 51, 964-980
- Olweus, D.(1978) Stability of aggressive reaction patterns in males :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85, 852-875
- Parker, J. G., & Asher, S. R.(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tin*, 102, 357-389.
- Rose, A. J., Lockerd, E. M., & Swenson, L. P.(2001).

- Overt aggression and relational aggression among sociometrically and perceived popular children and adolescents.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Minneapolis, MN, April 2001.
- Schwartz, D., Chang, L., & Farver, J.(2000). Correlates of victimization in chinese children's peer groups. Paper presented at ISSBD XIV Meeting in Beijing.
- Schwartz, D., Dodge, K. A., Coie, J. D., Hubbard, J. A., Cillessen, A. H. N., Kemerise, E. A., & Bateman, H.(1998). Social-cognitive and behavioral correlates of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in boys' play grou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 431-440.
- Schwartz, D., & Proctor, L. J.(2000). Community Violence Exposure as a Predictor of Aggression and Peer Victimization. Paper presented at ISSBD XIV Meeting in Beijing.
- Shield, A., & Cicchetti. D.(1997). Emotion regulation in school-age children : The development of a new criterion Q-sort sca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 906-916.
- Shield, A., & Cicchetti. D.(1998). Reactive aggression among maltreated children : The contribution of attent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 381-395.
- Smithmyer, C. M., Hubbard, J. A., & Simons, R. F.(2000).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in delinquent adolescents : Relations to aggression outcome expectancie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9, 86-93.
- Thompson, R. A.(1990). Emotion and self-regulation. In R. A. Thompson(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98, Socio-emotional development* (pp.17-52). Lincoln, NE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Thompson, R. A.(1994). Emotion regulation :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In Fox, N.(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p.25-52).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 Tremblay, R. E.(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during childhood :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2), 129- 141.
- Weinberg, M. K., Tronick, E., Cohn, J. F., & Olson, K. L.(1999). Gender differences in emotional expressivity and Self-regulation during early infancy. *Developmental Psychology*, 35(1), 175-188.

2004년 4월 30일 투고 : 2004년 9월 5일 채택